

구직 청년은 직업탐색부터 숙련향상까지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직자용 일학습병행 신설 -

정부는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을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7일(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주)평화이즈(서울시 서초구 소재)를 방문하여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이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 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에 취업한 뒤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오늘 방문한 (주)평화이즈는 '16년부터 입사 1년 미만의 모든 신규 입사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여,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직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등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현장 목소리(일학습병행 우수사례)

- ◇ 의료용 정보시스템 설계 분야는 전공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일학습병행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하여 매출액 상승 및 대외적으로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남 ((주)평화이즈 HRD 담당자 조OO)
- ◇ 직업계고 재학생 때 시작한 일학습병행 훈련(금형제작)으로 졸업 후 기업에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S기업 학습근로자 김OO 프로)
- ◇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생산 현장 근로자가 전문성을 갖게 되어 공정의 불량률은 크게 낮아졌으며, 근로자는 자격취득 등 자기 계발로 만족도가 높음 (D기업 정OO 본부장)

이성희 차관은 “일학습병행제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무 역량을 갖추어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여 일반 청년 구직자뿐 아니라 취업 취약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일학습병행제 개요

붙임 2.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 운영 계획

붙임 3. 일학습병행제 운영 성과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오수학 (044-202-7309)
		담당자	사무관 김남균 (044-202-7224)



□ 사업개요

- '13년 일학습병행* 도입, 재학생과 재직자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훈련(산업수요 반영) 시작 후 지속 성장

*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20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일학습병행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제도 운영현황

❖ 학습근로자의 훈련 전 신분에 따라 재학생용과 재직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훈련 과정 80% 진행 시 내·외부 평가 합격자에게 일학습병행 국가기술자격 부여

- (재학생)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중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 인력이 부족한 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학습병행 참여 → 청년 '조기 취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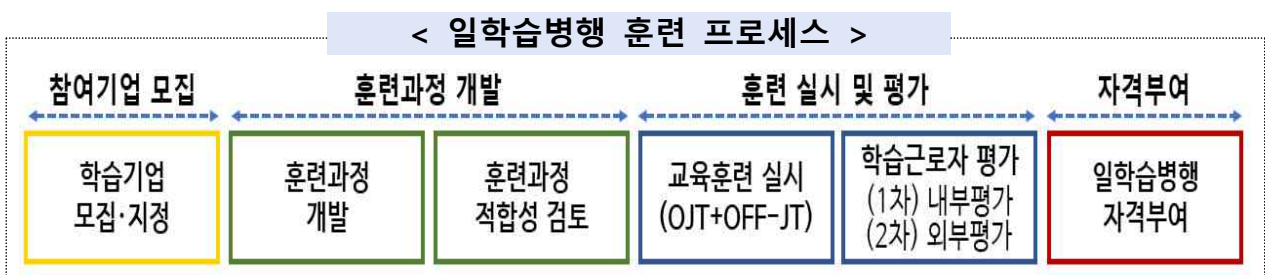
* 재학생 학습근로자 현황('22 기준) : 직업계고(8,291명) > 4년제(2,339명) > 전문대(864명)

- (재직자) 학습기업에 채용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중에서 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일학습병행 참여 → 직장 '조기 적응' 지원

-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대(2년, P-Tech), 4년제 편입(2년, 시범사업) 과정 운영

□ 추진실적

- 학습기업 20,412개, 학습근로자 145,302명 참여('23.까지 누적 기준)



I

배경

- '13년부터 재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국내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도제식 현장 교육인 일학습병행제 도입
 - * 재학생/재직자(천명): ('20) 14.4/19.9 → ('21) 12.6/20.0 → ('22) 11.5/20.1 → ('23.10) 10.9/18.3
- 재직자 직무향상 훈련 위주('14년~현재까지 재직자 비율 72%) 운영으로 청년 구직자의 조기 입직 촉진 기능 약화

II

운영 방향

- 청년 구직자(미취업 청년 및 니트 등)의 참여 및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 도입('24년~)
 - 기존에는 재직자(구직 기간을 거쳐 既 채용)와 재학생만 참여한 반면,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 신설로 청년 구직자의 구직기간 감축 및 사전이론교육으로 청년 구직자의 직업 선택권 확대 기여

<기존 일학습병행과 구직자 일학습병행 차이점>

구분	現 일학습병행제		구직자 일학습병행<신설>	비고
	재학생	재직자		
대상자	고교/전문대/4년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모든 청년 구직자	
훈련과정	사전이론교육	-	○	구직 청년의 직업탐색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제공 <신설>
	현장훈련	○	○	기존 유형과 동일
	이론교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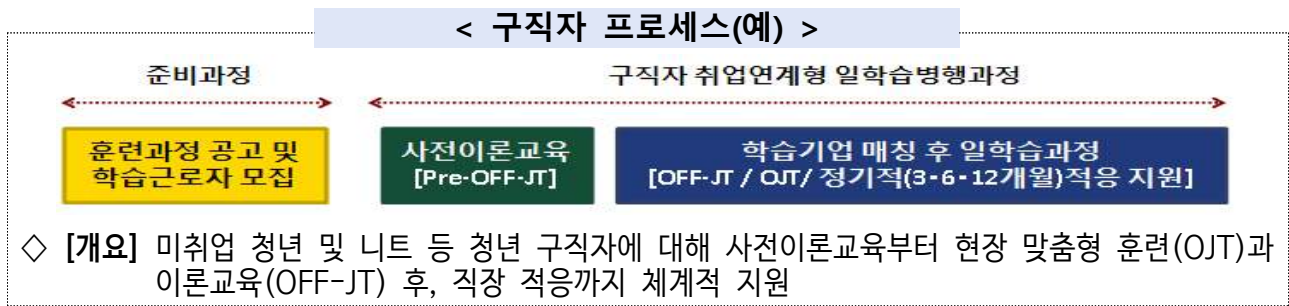
III

기대효과

- (학습근로자) 기존에 없던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기업에 대한 탐색↑ + 기초직무능력 습득
- (학습기업)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 채용으로 구인난 해소 + 숙련기간 단축 + 훈련비용 절감 등 이익↑

IV

운영 계획



1 준비과정 :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학습근로자 모집

- (공동훈련센터) 기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고교단계 제외) 및 신규 참여* 희망 기관

* 일학습병행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

- (학습근로자) 미취업 청년 구직자

2 사전이론교육(Pre-Off-JT) : 취업기초교육 등 실시

- 일학습병행 훈련 적응도 제고 및 중도탈락율 감소 목적으로 공통직무, 기초역량 중심으로 교육*

* 취업기초교육(자기탐색, 기업탐색, 면접 강의 등) 및 기초직무교육(전공 기초이론 등) 등

- 사전이론교육 기간 중 훈련생에게 학습기업 매칭 지원

3 일학습병행 훈련(OJT/Off-JT) : 현장 맞춤형 숙련인력 양성

- (현장훈련, OJT) 청년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 생산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훈련

* 학습근로자 중 니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청년이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 등 지원

- (이론교육, OFF-JT) 지정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지역·산업 훈련 수요 및 학습근로자 수준 등을 반영한 표준훈련과정 개발·운영

V

향후계획

- 사업 설명회(2.28, 서울역 12번 출구 비앤디파트너스, 13:00~15:30)
- 주요 질의응답(Q&A) 자료집 배포(3월 중)

- 산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인난을 겪는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경로 역할* 및 청년의 조기 입직 지원



- (기업)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재교육 비용 절감 효과** 有

* 예) A기업 현장교사 정00 ('18년 고교 일학습병행 참여로 숙련도 향상 후 現 기업 현장교사로 후배 양성)

** <'22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대상 실태조사>

신규인력 1인당 ▲재교육비: 57.3만원 절감 ▲채용 공고 및 홍보비: 12만원 절감 등

- 고품질 훈련으로 인식되고 기업의 높은 만족도로 학습기업의 훈련 재참여율* 지속 증가

* 학습기업 재참여율: ('19) 55.3%→ ('20)59.9%→ ('21)63.9%→ ('22)65.7%

- (학습근로자) 충분한 훈련기간(1~2년간)으로 학습근로자 역량과 직무 수준 간 미스매치 해소

✓ 현장(학습근로자) 목소리

- ◇ 일학습병행을 통해 업무 관련 지식 습득 및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어, 직무 역량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음 (고교 + P-Tech 참여 학습근로자 C)
- ◇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스펙 쌓기보다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어 구직기간 중의 취업 준비보다 더욱 알찬 시간이었음(4년제 재학생 관정 참여 학습근로자 K)

-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동일산업·동종직종의 숙련인력으로 발전

* <'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 결과> 일학습병행 훈련종료 3년 후 참여자가 미참여자 대비 ▲동일기업 근속가능성 25%p↑ ▲동종직종 근속가능성 43%p↑

- 일학습병행 참여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22. 61.5%)은 미참여 학생(직업계고+일반고 직업반) 취업율 대비 2배 이상